



서울시립대부중·고



캐나다 크루즈 총회 화보

▶ 관련 기사 및 화보 5~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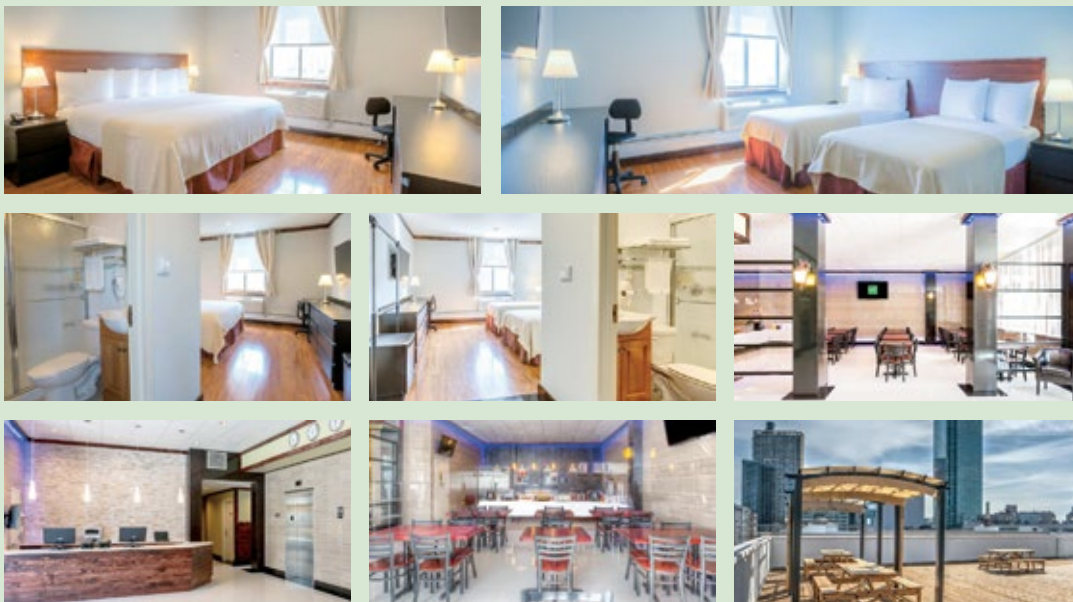
모교학생 LA·뉴욕 방문

▶ 관련 기사 20~25면



LIC HOTEL

We emphasize cleanliness and comfort above all else and strive to provide our guests with the most convenient experience during their visit to the wondrous city of New York.



44-04 21st Street, Long Island City, New York 11101
718-406-9788

www.lichotelny.com



김승호(23회) · 김지화



서울사대부중·고 미주동창회보

제3호 | 2019년 12월 1일

CONTENTS

- 03 인사말 | 오시국(22회)
- 04 남가주 회장 이임사 | 김민주(21회)
- 04 연합회 총회 소식
- 05 크루즈 여행 화보
- 09 크루즈 여행 후기
- 10 크루즈 여행기 | 박영은
- 11 시 | 강을 바라본다 | 김영교(11회)
- 12 남가주 동창회 소식
- 15 지역 동창회 소식
- 18 나의 삶, 나의 이야기 | 권오화(8회)
- 20 뉴욕방문기 | “Big Apple Club”
- 24 LA방문기 | “I Dream, I Can!”
- 26 수필 | 이해 안 되던 아이 | 박기순(17회)
- 27 수필 | 참음의 끝 | 최완섭(22회)
- 28 연합회 후원 명단/크루즈 여행 참가자
- 29 연합회 결산 보고
- 30 후원 광고

회장/발행인 김민주(21회)
 수석부회장 최완섭(22회) 부 회장 손명희(23회)
 감 사 권일준(20회) 재 무 김영태(24회)
 사 무 국 장 박흥주(22회)
 편 집 위 원 조남중(34회) 구송영(47회) 신다정(62회)

13347 Fern Pine Circle, Cerritos, CA 90703
 (213) 268-2301 | snubugo2018@gmail.com
<http://socal.snubugo.net>

“부고인들과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롭습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미주총동창연합회 뉴욕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22회 오시국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사대부고라는 명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대부고를 다녔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롭습니다.”



오시국(22회)
뉴욕 동창회장

이는 이역만리 타국에서의 난관들을 극복하고 현재 뉴욕의 유명호텔과 빌딩들을 소유한 성공신화 23회 김승호 동문이 한 말씀입니다.

저 또한 지난 날 서울사대부고에서 배우고 익히며 친구들과 함께한 친구의 시간들이 현재의 자랑스러운 부고인들이 되는 주춧돌이 되었다 확신합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강을 떠나 멀고 먼 바다로 갔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준 모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랑스런 선배가 되길 바랍니다.

“부고인들은 궁지가 있고, 서로 도울 줄 알며, 모교를 많이 사랑합니다.”

이번 미주총동창연합회가 주최하는 크루즈 여행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동문들이 친목과 우정을 다지는, 참으로 의미있고 아름다운 만남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서울사대부고라는 같은 공간에서의 3년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건대 우리네 인생길에서 소중하고 가치있는 젊은 시절이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기 그리고 친애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늘 감사와 행복이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날들로 채워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합회 발족 큰 성과물 세대교체 못이뤄 죄송”

이제 남가주 동창회장직을 내려 놓으니 ‘만감이 교차한다’는 옛말이 실감됩니다. 처음엔 잘 감당할 수 있으리나 생각했으나 갈수록 제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많은 선후배님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몇가지 뜻 깊은 성과물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연합회 발족이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작년 창립에 이어 올해도 캐나다 크루즈 겸 두 번 째 총회를 열었습니다. 본국에서도 호응이 컸습니다. 모두 16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이제 연합회도 뿌리를 내렸지 않나 싶습니다.

선농장학재단의 모교재학생 초청 프로젝트인 ‘I Dream I Can’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돼 모교와 미주 동창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최영일(16회) 이사장과 임원들의 사랑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작년 모교 이은숙 교장 일행의 첫 미주 방문도 뜻 깊었다 하겠습니다. LA는 물론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등지의 동문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는 한편 현지 고교들도 방문해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한 것도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마음만 있었지 실천에 옮기지 못한 사업들도 적지 않았음을 이 기회를 빌어 고백합니다. 당초 보다 젊은 회장단 구성을 위해 세대교체를 시도했지만 제 능력 부족으로 이루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회장직을 떠나면서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님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새해 더욱 행복하십시오.



김민주(21회)

2020-2021 총동창연합회 정기총회 신임 회장단 선출

미주총동창연합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6일~31일 캐나다 크루즈 선상에서 개최됐다.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총동창회를 이끌어갈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다.

- 미주총연합회 회장: 김민주(21회)
- 부회장: 각 지역 회장
 - LA : 박흥주(22회)
 - SF : 홍성호(36회)
 - Oregon : 최완섭(22회)
 - Seattle : 한영한(16회)
 - Dallas : 김웅(22회)
 - Michigan : 신광용(22회)
 - Chicago : 노성환(18회)
 - Philadelphia : 이종태(23회)
 - Atlanta : 노흥식(14회)
 - NY : 오시국(22회)
 - DC : 손명희 (23회)
 - Boston : 최한길(22회)
 - Toronto(Canada) : 민태기(27회)
- 사무국장: 구송영(47회)
- 재무: 김영태(24회), 정경금(31회)
- 감사: 권일준(20회)

★차기 총회: 10월 초(스모키 마운틴 산장)



선출된 신임 회장단은 김민주(21), 박흥주(22), 오시국(22), 최완섭(22), 노흥식(14), 손명희(23), 정경금(31), 구송영(47)

캐나다 크루즈 여행

기간: 10월 26일 - 10월 31일(5박 6일)

이번 캐나다 크루즈 여행을 위해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 말레이시아와 미국 10주에 산재한 동문들이 참가하여 Global Reunion 행사를 가졌다.

25일 뉴욕에 도착한 동문들은 김승호(23회) 동문이 운영하는 LIC Hotel에서 1차 여정을 풀었고 며칠 일찍 도착한 동문들은 워싱턴 DC와 뉴욕 시내 투어를 했다.

26일 브룩클린 항에서 출발한 17층짜리 크루즈 선박 Princess호에는 161명의 동문들이 5박 6일의 여행을 위해 몸을 실었다.

28일에는 Halifax 시내 관광과 Halifax에서 가장 유명한 화강암 바위와 대서양 바다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페기스 코드 등대를 관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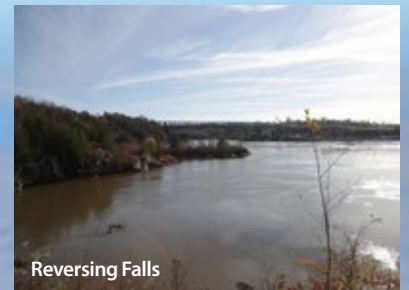
29일에는 St. John 시내 관광, Bay Fundy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파도와 강어귀 끝에 좁은 협곡의 조합으로 유명한 Reversing 폭포 그리고 St. Martins에 있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세계에서 제일 큰 Bay Fundy을 끼고 있어 자연스럽게 생성된 에코 동굴도 관광하였다.

30일에는 크루즈 선상에서 2020-2021 신입 회장단을 선출하는 총회가 열렸다.

권일준(20회) 사회로 각 기별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는데 특히 21회 동문들은 한국에서 한복까지 준비하여 분위기를 돋우며 모든 동문들의 관심을 끌었다. 80세가 넘는 동문들도 저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발표하여 시간이 짧아 아쉬움을 남겼다.

크루즈 여행을 마친 후 기수별로 서부관광, 동부관광을 하는 등 오랫동안 만난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행사 성공여부에 대해 반신반의 하였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선.후배 동기간에 우애 증진에 한 획을 긋는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되고 향후 행사는 좀더 많이 적극적인 참여 하는 동기 부여가 된 행사가 되었다.



동기들 모임



10회 ▶ 변인재, 안종희, 서정학



11회 ▶ 동기들



14회 ▶ 동기들



16회 ▶ 한영한 부부, 이종근 부부



17회 ▶ 임혜옥 부부



21회 ▶ 동기들



22회 ▶ 동기들



23회 ▶ 동기들

기수별 장기자랑



10회 ▶ 변인재 부부의 “인생의 나그네” 듀엣



11회 ▶ 동기들 합창



13회 ▶ 김복자, 김경자 동문



14회 ▶ 라인댄스



17회 ▶ 박기순, 임혜옥 시낭송



20회 ▶ 권일준 부부의 빌리 진 차차 댄스



20회 ▶ 김영옥 독창



21회 ▶ 송영옥 외 여자동기들의 아리랑판타지 공연(대상 수상)

기수별 장기자랑



21회 ▶ 유병기 외 남자동기들의 백코러스와 백댄서



22회 ▶ '울산아가씨' 노래와 춤—한국에서 최다참석(30명)



22회 ▶ 토론토 이양배의 '대니보이' 하모니카 연주



23회 ▶ 이정우 외 동기들의 '아모르 파티' 춤과 노래



23회 ▶ 중요무형문화제 23호 문재숙 동문의 '진도 아리랑'



47회 ▶ 구송영의 자녀 박하은, 박하숨 노래



권오화(8회) 선배님의 장기자랑 수상 발표





밤 바다

나에게 이번 여행결정은 여행을 안 좋아 하는 남편이 혹시 크루즈는 좋아하려나 싶은 마음에 이왕이면 동문들과 함께 라면 더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나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다. 동굴 탐험(?)에 필요하다는 장화 때문이다. 일회용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것도 여러

Style로, 명색이 비닐로 된 장화라니까 잠깐 신을것인데 설마 물이 새겠냐고 싼 것으로 주문을 부탁했다.

물에 들어 가자 마자 나는 물이 든 비닐 주머니에 신발을 넣고 걷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건 장화가 아니고 그냥 “발 싸개”였다.

오랫동안 많은 임원들이 수고한 것에 비하면 5박 6일은 너무 짧았던 것 같다. 하지만 모두 순수함을 잃지 않고 검소하고 겸양과 배려를 갖춘 동문들을 보며 이건 우리 부고 졸업생들만의 특별한 향기이며 자랑인 걸 느끼면서 나는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했다. 어디 쯤 와 있는 내 인생 일까 - 대답 없던 그 밤 바다가 그림다.

내년 총회는 이곳에서 하란다. 걱정이 앞선다.

- 아틀란타 부고 동문회 총무 임혜옥(17회)



드디어 뉴욕 크루즈를 갔다 왔다. 우리가 탔던 Regal Princess를 타고 같은 코스를 먼저 다녀왔던 교회 친구가 묻는다.

“배가 Brooklyn항을 막 출항할 첫날 저녁, Manhattan의 그 멋진 모습을 보았나? 그거 장관인데...” 그가 또 묻는다, 저녁에 16층 Deck에서 상영하는 초대형 Screen의 영화를 보았

느냐고, 모두 못 보았다. 전체 모임, 동기 모임에 참석하느라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놓친 것이다. 어디 나뿐이라. 6일간의 크루즈 여행이라면, 하루는 아무 Schedule을 잡지 않고, 각자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 바빴다. 부고 졸업후 49년에 보는 친구와도 눈인사밖에 나누지 못 하였으니 아쉽다. 한가지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 버스 3대를 대절하여 우리 일행 140여명이 참가하였던 St. John이야기이다. 추후 탑승 인원을 점검하고 보니, 한사람도 그냥 탄 사람없이 요금을 선납한 총 인원과 정확히 일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천하부고인이 모인 행사로서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 행사를 준비하였던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아쉽고 죄송하였던 일이 많았지만 참여하였던 161명 모두가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 최완섭(22회)



여행은 호기심이다. 특별히 크루즈는 처음 경험이기에도 더욱 벅찬 감동과 울림이 컸다. 1년 동안 준비했지만 과연 얼마나 호응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천하부고만이 이를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여행을 성황리에 마친 것이다. 관

심과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한참 동안 행복했던 순간의 잔상이 남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캐나다 크루즈를 통해 미주연합회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추후에도 더 좋은 만남의 기회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동창회 사무처장 김진혁(27회)



이번 크루즈를 통해 저는 47이라는 등번호 같은 닉네임이 생겼습니다. 오며가며 얼굴을 마주 할 때 마다 따뜻한 미소로 47회~ 하시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언니오빠라고 부

르지 못하는 성격 덕에 주위에 늘 동생들만 있던 저는 은근히 언니 오빠있는 친구를 부러워 했나 봅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이름 한번 들은 적 없는 후배에게 사대부고 동창이라는 이유 만으로 이쁘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 든든한 뒷배라도 생긴 듯 우쭐한 마음입니다. 1995년 부고 졸업 후 같은 해 식구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지요. 어딘가 기대고 싶고 내 편이 필요할 때, 신문에 커다란 지면 광고가 보였습니다. “서울사대부고 가주 송년의 밤”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어쩌면... 동기동창을 만날 수도 있겠다 싶어 1997년 처음으로 동창회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는데... 어떤 일인지 그때 부터 현재 까지도 기대와는 달리 동기는 말할것도 없고 밑으로는 몇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인이 얼마 없는 테네시 주에 거주 하니 동창은 물론이고 한인을 만날 기회도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크루즈에서 21회 22회 23회 선배님들께서 모여서 시간을 보내시는 걸 보며 얼마나 부럽던지요. 부러움을 등에 지고 지금 부터 백방으로 사대부고 동창 찾기를 해보렵니다. 응원해주세요! 저는 어느덧 딸 넷을 둔 엄마가 되었고 마흔도 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루즈 여행에서 그동안 없던 언니오빠들이 왕창 생겼습니다. - 사실 한번도 언니 라거나 오빠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 다른 많은 후배들도 이런 "이쁨받음"을 느껴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 구송영(47회)

AT SEA

내려갈 때 보았네 /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시인 고은은 삶의 절정을 지나 나이드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두 줄의 시로 읊었다. 지난 시월, 그 원숙한 시선을 가진 이 백 여 명과 함께 바다에 있었던 5박 6일을 떠올려 본다. 나는 사대부고 출신이 아니지만 1959년에 사대부고를 졸업한 엄마를 따라 2019년 10월 26일 브룩클린 항을 떠나는 3600명 정원의 17층 짜리 크루즈 선박 프린세스호에 올랐다. 사대부고 미주 총동창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글로벌 리유니언 행사에는 전세계에서 온 8기부터 47기까지의 사대부고 동문과 한살배기 아기를 포함한 동문 가족과 친구 등 161명이 함께 했다. 옛새 내내 새로운 곳에 발을 디디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나아가 알던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었다.

장기자랑에서 만담으로 인기상을 받은 이는 사십년째 같은 만담을 해도 아직도 통한다며 유머가 살아있으려면 전달을 잘 해야 하고, 자고로 사설이 없어야 한다고 비법을 공개했다. 어디 유머뿐일까? 소통이 열쇠인 지금 이 시대에 가진 정보를 잘 전달하고 사설 없이 전하는 기술을 가진 이들은 이번 여행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세계 방방곡곡에 새들의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이는 직접 찍은 다양한 새들의 사진과 함께 그것들의 고운 깃털과 독특한 생태에 관한 강연을 했다. 그는 자신이 은퇴 한 후 어린 시절의 꿈을 기억하고 카메라를 메고 떠난 날이야말로 새로 태어난 날이었다고 고백해서, 우리 자신의 꿈을 돌아보게 만들고, 마음 속에 잠자던 새들이 퍼덕이며 깨어나는 것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최고령의 참석자인데도 행사 곳곳에서 호스티스 역할을 담당했던 이는, 난 말이야 매일 밤 10시면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잠들어. 아침에 눈이 떠지면 아니고 내가 부활했구나. 오늘도 기대 이상으로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물같은 하루를 살아야 겠구나. 하고 사는거지. 그러고 보면 It's Okay. That's Okay. 두루두루 Okay.라며 허스키하고 큰 목소리로 거듭 오케이를 외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었다.

첫 기착지인 캐나다의 국경도시 헬리팩스는 노바스코샤 주의 수도이고 오랫동안 군사기지로 명성을 얻은 곳이었다.



11기 홍(박)효화(오른쪽) 동문이 딸(박영은)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사진에 담고 있다.

하루를 보내는 방법도 다 달라서, 어떤 이는 Hop On Hop Off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 동안 도시를 구경한 뒤 탔던 자리에서 내려 배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13 정류장마다 일일이 내려 관광지를 하나하나 제 발로 밟았고, 어떤 이는 일단 한 바퀴는 앉아서 다 돌고 다시 올라탄 버스에서 꼭 가고 싶었던 정류장에만 내려 구경을 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낮잠에 빠진 이가 있었는데, 크루즈측이 제공한 다른 관광 옵션을 택해 유명하다는 등대 레스토랑의 바닷가재 요리를 먹으러 간 이도 있었고, 아예 건강과 일 때문에 육지관광을 마다하고 그냥 배에 남은 이도 있었다.

하루를 보내는 모습도 161명이 다 이렇게 제각각인데, 열 일곱, 열 여덟 살에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브룩클린 항에서 만나 다시 한 번 한 배를 타는 이때까지 그들의 삶에 어찌 우여곡절이 없었으며, 굴곡이 없었으랴. 난 동창회는 무슨 임원이나 무슨 장 아니면 못 오는 텐 줄 알았어. 근데 어제 밤에 너희랑 같이 밥 먹고 수다 떨면서 내가 왜 지난 오십 년 동안 여길 안 왔을까. 나 그동안 헛살았다, 싫어. 이제 꼭 안 빠지고 올꺼야. 그간 못 온 사연도, 지위도, 부귀도 다 내려놓고, 건강한 얼굴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 즐거웠던 동문들, 올망졸망한 딸 아이 넷을 데리고도 참가자 전원을 위한 개별 서바

이별 패키지를 만들어 돌린 47기 막내부터. 어쩔 연습할 때 보다 이렇게 못하니, 우리 90에 다시 하면 인기상은 줄거야. 니들 다 90까지 살어. 내 나이가 어때서 다시 부르고 상 타게. 장기자랑 끝나고 새롭게 다짐하는 팔순의 11기까지. 바다에 있는 동안은 모두 다음 순간 벌어질 일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하나였다.

두번째 기착지인 뉴브런즈윅 주의 세인트 존에서는 배에서 내린 모든 일행이 대절버스 세 대에 나누어 탔다. 간만의 차의 따라 바닥이 드러나는 St. Martins Sea Caves와 하루에 두 번 바닷물과 강물이 기세를 바꾸어 작은 폭포를 만드는 Reverse Falls 를 구경했는데, 미주총동창연합회 회장이 기수 높은 동문과 손님들을 모신 첫번째 버스에 함께 탔다. 몇 달 전부터 세계 곳곳의 동문들에게 일일히 진행사항을 업데이트 해 준 이였다. 여권을 호텔에 두고 온 동문의 승선 수속때문에 모든 일정이 계획과 어긋난 첫 날부터, 마지막 날 배에서 내린 동문들이 온 곳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 공항에 갈 택시를 탈 때까지, 그는 물론 아내까지 동분서주 설 틈이 없었다. 세인트 존 강의 급류를 보고 바다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그가 애창곡이라며 틀어주었던 Nat King Cole 의 Time and The River가 귓가에 맴돈다.

세월과 강물이 내 사랑을 내게 데리고 오리. 그래야만 한다면, 난 그녀를 바다로 데려간 강가에서 영원히 기다릴 거요. 여기 강가에서, 우리는 사랑했고, 우리는 웃고, 우리는 울었지. 그러나 세월 지나 내 사랑 그대는 물살과 함께 사라지고 빈 가슴만 남았소. 얼마나 오랫동안 외롭게 지냈는지. 밝게 빛나는 사랑의 별이여, 내겐 그녀가 필요하오. 오늘 밤 그녀를 내 품에 인도해 주오. 세월과 강물은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그러나 시간이 멈추고 강이 마르는 날까지 내 심장은 다른 이를 위해 뛰진 않을거요.

내게 이번 여행은 심장시술을 앞둔 엄마가 혹여 동문들 사이에서 쓰러지시면 어떡할까 싶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빠르게 흘러만 가는 세월과 강물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난 사대부고 160명과 한 배에서 함께 웃고 함께 먹었던 5박 6일을 통해 사대부고가 엄마의 모교일 뿐아니라 내게도 고은의 시에 나오는 그 꽃처럼 특별해 졌다. 먼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동문을 지원하게 될 지, 해외에 사는 동문의 자녀와 자손들이 사대부고를 견학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어보게 될 지, 내년 스모키 마운틴에서 있을 총회에 또 엄마와 함께 신청을 하게 될 지, 바다에서는 육지에 닿아 할 일을 아직 모르지만, 일단 동문회 지원양식서의 엄마 이름 아래 내 주소와 연락처도 적어 넣었다.

강을 바라본다

동창회는 강이다.

바람 시원한 강가에 앉아 강을 바라본다.

아틀란틱 바다는 얼마나 많은 강을 품고 있을까?

내 저물녘에 바라보는 강 지극히 흐뜻하구나

아틀란틱 바다에서 윗물 아랫물 만나 흐르면서

사귀를 갖는 동창강이 무척 아름답다.

한강은 교가에서 흘러 세상끝까지

동창강은 그침없이 우리 마음에 흐른다.

거의 반세기, 때론 실같이 흘러,

그것도 남여공학 푸른 강이네!

나라 안에서, 나라 밖에서 역사 바다 이루네.

의미있게 만나는 천하 부고 강이네!

바윗돌을 만나면 돌아흐르기도

폭포를 뛰어 내리기도

폭로도, 흙탕물도, 더러운 것도 가라 앉히며

바람 센날도, 햇빛 눈부신 날도,

구름 덮힌 하늘이

가을 어둡게 해서 흐리기 힘들어도

우리 서로 강바람이길…….

우리는 지구별에서 동창 인연으로 만난

작은 물방울…….

2019년 남가주 동창회 이사회

- 장소: JJ 그랜드호텔 2층
- 일시: 10월 5일 12:00pm - 15:30pm
- 참석인원(18명)

김민주(21), 김영태(23), 차제명(38), 심재호(27), 권상덕(14), 김승모(23), 박용필(18), 이길주(16), 윤정현(6), 이정화(4), 김경자(13), 박준옥(17), 최영일(16), 박용훈(21), 심종택(22), 원건희(26), 조남중(34), 박홍주(22), 권상덕(14)

■ 상반기 사업보고

1. 전동문 야유회 일시: 2019년 6월 29일(토)
장소: Oceanside / San Clemente / San Juan Capistrano (메트로링크 기차여행)
2. 선농합창단: 10월 29일 올림피아양로병원에서 위문공연
3. 선농장학회: I DREAM, I CAN! 2018년도에 이어 2019년 8월 13부터 8월 23일 9박 10일간 UCLA 및 USC, LACC, LATTC 등의 캠퍼스 투어 '대한민국민기념관' 방문, 많은 선후배 동문들의 후원당부
4. 남가주서울사대부중고 회보의 재발행 안
또한 상반기 이사회에서 동창회장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상임 회보발행 주관부서를 구성하여 남가주 동창회보를 복간하기로하고, 편집위원장에 이길주 동문(16회)을 선정하였으나 실제로 참여할 동문을 구할 수가 없어 계획이 무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회장추대위에서 추대한 박홍주 동문(22)을 차기 회장으로 결의
6. 차기 이사장은 현 동문회장으로 추대
7. 차기감사는 차제명 동문(38) 선출
8. 동창회정관 개정안(선농장학재단에 대한) 의결: 총 17명 찬성 14반대 3으로 개정안 가결 - 독립되어 있는 장학재단을 총동창회에 소속시켜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건의 및 공지

1. 동문 동문 경조사시 상조담당 연락망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방안 강구요망(이길주 동문)
2. 2019년도 12월 14일(토) 총동창회 오후 5시 일정 발표

2019년 남가주 동창회 기차여행 야유회

지난 6월 29일 토요일, 메트로링크 기차를 타고 Oceanside로 동창회 나들이가 있었다. 오전 8시 다운타운 유니온역에 도착하니 낮익은 얼굴들이 한두분씩 모이기 시작했다.

유니온 역에서 시작으로 다른 역에서 합류하기로 한 동문들도 있어 정확한 인원을 확인하지 못한채 기차는 출발하였다. 오랜만의 기차여행에 화창한 날씨까지 받쳐주었고, Norwalk과 Fullerton역에서 합류한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오션사이드로 향해 달렸다.

오션사이드에 도착해서 총인원 점검(29명?), 잠시 Pier를 산책한 후 즐거운 점심을 가졌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오는 동안, 조남중 총무님께서 직접 차로 운반해 주신 도시락과 떡, 수박, 음료수까지 완벽한 식사준비에 감동 - 사모님과 따님을 동반하시고 - 감사 박수 짹짹)

맛있는 점심 식사 후 여가시간을 가지려 했으나 다음 스케줄에 인해 바로 상행열차에 올라 다음 역인 San Clemente Pier에서 내렸다. 그곳에서부터 피어와 해안가 산책로를 따라 약 1마일을 걸어 San Juan Capistrano에 도착, 모두가 적당히 피곤했을즈음 그곳 공원에 미리 좋은 자리를 잡아놓고 우리를 맞이한 총무님, 시원한 음료수까지 제공하니 다들 우와~ 함성이 절로 나왔다.

잠시 재충전 후 Mission San Juan Capistrano를 방문해 역



사적인 건물들과 성당 내부도 관광했다. 잘 정돈된 정원은 관광도시답게 예쁘게 꾸며놓은 카페들과 어우러져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막차인 오후 6시 11분 기차를 타고 다시 유니온역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중간 하차하시는 동문들, 그리고 마지막 유니온역까지 완주하신 동문들과 아쉬운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기차를 타고 오가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울타리 선교회 기금모금 콘서트 가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울타리선교회 대표 나주옥(17회) 동문은 지난 8월 19일 오후 8시 월트디즈니홀에서 20회 정기 기금모금 음악 콘서트를 가졌다. 디즈니홀에서 선교회가 주최한 네번째 음악회로, 주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Fishers of Men)'다.



선교회의 디즈니홀 콘서트는 4년 전 큰 비용 때문에 큰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작해 첫 해의 손익분기를 넘긴데 이어 매년 기금모금에 성공했다. 기금 모금 행사 수익은 노숙자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청구회 연말 골프 대회

지난 11월 9일 인디언힐스 골프클럽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남가주 총동창회장배 토너먼트를 가졌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청구회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고 새로운 회장과 함께 도약하는 2020년을 기획했다



연말 골프대회 챔피언 권상덕(11회, 우측)

▲골프대회 수상자

챔피언: 권상덕(-2)

메달리스트: 강병찬(16개)

남 장타: 원건희, 클로스핀: 이석규

여 장타: 김홍숙, 클로스핀: 윤재옥

▲2020년 청구회 새 임원들

청구회장: 강병찬(16회), 총무: 김홍숙(27회)



남가주 선농합창단 창립 6주년 기념

남가주선농합창단은 지난 2월 5일 연습장소인 미주평안교회에서 창단 6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2013년 창단된 이후 매주 화요일 모여 국내외의 가곡 및 정선된 곡들을 연습하고 있는 합창단은 동문들의 배우자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정기총회 송년회 모임

2019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모임을 알려 드립니다. 올 한해를 의미있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12월 14일(토) 5:30PM
- 장소: 옥스포드팔레스호텔 그랜드 볼룸

부고

이중희(2회) 박사 타계

원로 재미 과학자 이중희 박사가 지난 8월2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서울사대 부고(2회)와 서울공대를 졸업한 고인은 지난 1965년 도미, 남가주의 사학명문 USC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LA카운티 환경청에서 R&D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토질오염 방지 및 개선 등에 진력했다. 특히 1970년대 말 토런스 일대에 악취가 진동하자 원인을 규명해 내 주류 사회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메이저 석유회사인 모빌이 밤에 몰래 산업폐기물을 방출하는 현장을 잡아 내 거액의 벌금을 물린 사건이다. 환경청 퇴직 후에는 스탠더드테스팅 & 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 하수도 부식과 방지, 토양조사, 산업폐수와 관련한 연구에 온 힘을 쏟았다. 고인은 6.25 참전용사다. 최일선에서 포병장교(대위)로 근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신규 동문을 소개합니다

구송영(47회)

- 1995년 사대부고 졸업
- 캘리포니아 이주
- 서반어어 전공
- 2002년 결혼후 뉴욕 거주
- 2006년 샌디에고 이사
- 2010년 테네시주 거주(현재)
- 자녀는 12살, 5살, 3살, 2019년 3월 생인 네명의 딸을 두고 있다.
-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테네시주 차타누가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다.
- 오랜 전통이 있는 두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150년된 꽃가게 운영(www.joysflowers2.com)
-30년된 샌드위치샵 운영(Steamboat Super Sandwiches)



유현수(47회)

- 1995년 사대부고 졸업
- 텍사스주 거주(현재)
- 텍사스 Baylor University Communication Science & Disorders학과 교수



후원 캠페인

연회비는 동창회의 각종 행사, 모교 지원 및 동창회보 발행경비 등으로 소중히 쓰입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면 큰 희망이 돼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후원금 납부 내용을 기입하신 후 체크와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동창회 연회비 납부 캠페인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듭니다

* 원하는 후원구좌를 체크해 주세요.

- ☐ 미주 총동창 연합회
☐ 남가주동창회

서울사대부중·고 동창회 연회비 및 후원금 납부		
Make check Payable to SUN HIGH SCHOOL ALUMNI		
이름	(회)	() \$30
주소		() \$100
전화		() \$200
이메일		() \$300
		기타금액 \$ _____

Send Check to SUN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 13347 Fern Pine Circle, Cerritos, CA 90703

시애틀

8월 17일, 시애틀 지역 동문들의 친목모임을 이명희(16회) 동문택에서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애틀란타

10월 5일, 10여명 동문 가족들이 멀리 테네시에서 찾아 온 구송영(47회) 동문 가족과 함께 아미카롤라 공원에 있는 식당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 전날까지만해도 뜨거운 한 여름날씨였는데 소풍날에는 가을날처럼 오랜만에 시원한 날씨로 인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부고

이희목(3회) 동문 소천

지난 8월 2일 아침 이희목(3회) 선배님께서 소천하셨다. 이희목 선배님은 재학시절 밴드부에서 활동하셨고 그후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고 있는 “갯 여울”을 작곡하셨다. 베트남 전쟁 당시 맹호부대 군가들을 작곡 작사 하여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시카고

시카고한인여성회 회장으로 박순자 회장이 취임했다. 박순자 회장의 부군은 김성봉(11회) 동문이다. 육원자 차기 이사장의 부군은 육길원(11회) 동문이다. 여성회 장학위원장으로 권오화(8회) 동문이 활동하고 있다. 박순자 회장은 매릴랜드주 미국초등학교교사로 30여년을 근무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 2세교육 발전에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박순자 회장(시카 한인회여성회장)

필라델피아

서울사대부고 필라델피아 동문 2019년 춘계 정기총회를 5월 18일(토) 등대교회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조병우 동문(25회) 집에서 개최하였다. 여러 선배님들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하여 비록 적은 수의 동문이 모였지만, 조 목사의 사모님이 준비해 주신 웰빙 식단으로 만찬을 하며, 동문 모두가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 조병우 동문의 사회로 정기 총회를 진행하여, 그동안의 경과 보고와 동문들의 근황에 대하여 답소를 나눈 후,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후배 동문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현 회장단을 그대로 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장 이종태(23회), 부회장 허남숙(22회), 사무총장 조병우(25회) 동문이 계속 수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거나 지역 신문을 이용하여 동문들을 찾는 데 모두 힘을 쓰기로 하였다.



뉴욕

뉴욕 동문들은 매월 14부부가 월례회 형식으로 만나서 뉴욕 일원의 명소를 탐방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그동안 뮤지컬 Wicked를 관람하고, Dia Beacon Gallery도 관람 기회를 가졌는데 특히 이 갤러리에서 동문인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볼 수 있어서 감동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등산부와 골프모임 및 특별한 공연을 한윤미(35회) 동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취제 앙상블이 청소년 후원을 위해 음악 공연을 준비중이다.



Dia Beacon Gallery



뮤지컬 Wicked를 관람중인 동문들

워싱턴 DC

DC 지역에서는 월례 골프대회를 통해 동문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안되는 동문은 식사때 참석하곤 한다.

금년 송년회모임은 12월 15일 우래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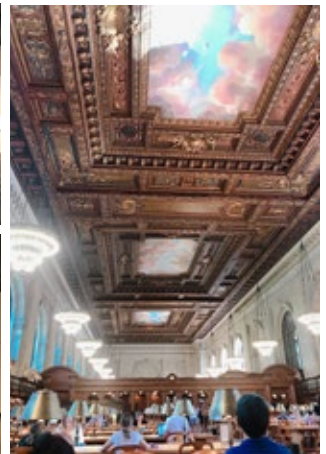


본교 우수교사 초청 미동부 연수 가져

그동안 우수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동남아 위주로 진행했으나 미주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처음으로 미 동부지역 뉴욕과 보스톤에서 연수 방문을 진행했다.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본교 재학생들과 미주 지역 졸업생들의 선후배 관계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통해 앞으로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교사: 이승훈, 김태환
한문정, 임혜성



2020 정기총회 및 관광 ▶ 10월 초

Great Smoky Mountains National Park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은 연간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국립공원 관광객 순위 1위이지만 한인들 사이에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랜드캐년, 옐로스톤, 요세미티 등지는 계절에 따라 관광객의 숫자 변화가 큰데 비해 이곳은 계절마다 다른 관광끼리로 거의 연중무휴로 관광객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테네시주는 조지아, 앨라배마, 미시시피, 아칸소, 미주리, 켄터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8개주와 접경을 같이하고 있고 가까이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북으로는 애플라치안 산맥의 남쪽 끝줄기에서 고원지대를 거쳐 서남쪽 미시시피 하류지역까지를 연결짓는 사탕팔달의 교통 중심지이자, 동서남북 문화의 교차지점으로 다양한 음악과 예술이 함께하는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 멤피스, 록큰롤, 아메리칸 애수가 깃든 슬로우 부르스와 컨츄리 뮤직이 발달한 곳입니다.

또한 남북 전쟁당시 남부 최대의 거점지 애틀랜타, 미첼여사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 무대, 코카콜라의 탄생지입니다. 또한 동쪽 5시간거리의 옛 노예거래로 악명을 떨친 해안도시 사바나 등도 색다른 관광끼리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함께 다시한번 우리 부고인들이 뭉쳐서 즐거운 추억여행을 남깁시다.

▶문의: 미주연합회 회장 김민주(213.268.2301)



“인생은 노력과 근면, 좋은 인연과 하나님의 축복이다”

80 평생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인생은 부단한 노력과 근면, 그리고 좋은 인연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후회없이 행복한 삶을 누렸다.

나는 슈바이처 처럼 의사이며 선교사인 할아버지와 감리교 목사이신 외할아버지, 그리고 사업가인 아버지와 여성운동가인 어머니 사이의 4 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어머니의 극성으로 6살 때 혜화국민학교에 들어가 졸업 후 사대부중에 입학했다.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가서 보수산 꼭대기 천막속에서 비를 맞으며 공부를 했다. 부산 피난 시절, 공부 끝난 후에도 학교에 남아서 인형을 만들어 달리를 벌었다. 그리고보니 ‘애국 소녀’였던 것 같다. 그 시절 피아노레슨도 받았고, 시를 써서 선농단 학교신문에 발표했던 문학소녀 이기도 했다. 시가행진을 할 때면 태극기를 들고 군악대 앞에 서서 보무도 당당히 걸었다. 수학을 가르치던 태상근 선생님은 이런 나를 무척 귀여워하셨다. 트럭을 타고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바람이 무척 차다. 내가 입고 있던 양글라스웨터를 남녀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입어보며 깔깔대던 추억이 어제인 듯 그림기 한이 없다. 여관에 들어가 왕소금으로 이를 닦는 친구들에게 치약을 빌려줘 호감을 샀다.

부고로 진학한 후 수복이되어 서울로 올라왔다. 돈암동 집에서 학교가 있는 청량리까지 가려면 2개의 산을 넘어야 했다. 1시간 넘게 걸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가끔 지각을 해서 벌을 서기도 했다. 학교가 을지로 6가로 이사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정운 영어선생님은 영시를 많이 가르치셨다. 그는 경상도 말씨로 “느그들 시집 잘 가면 된데이, 건강하게 착하고 정직하고 사랑과 정이 넘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거라”

나는 정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렵게 사는 친구들에게 종종 전차표 한 권씩을 가방에 넣어주곤 했다. 고등학교 때 내 별명은 “박꽃”이다. 희고 부드럽고, 둥글둥글하고, 원만하다는 뜻

이다. 내 짝 김응덕이 지어준 별명인데, 누가 부를 때면 기분이 좋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어머니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에 입학 했다. 사실 어머니는 내가 음악대학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고, 대강당 채플시간에 찬송가 반주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셨다. 나의 어머니는 활발한 성격의 여성 운동가로 김활란 총장, 박마리아 부총장, 김옥길 총장과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다. 우리집의 여자들은 모두 ‘이화’ 출신이다. 할머니, 고모 3명, 이모 3명, 언니 동생까지 모두 이화학당부터 이화여고, 이화대학을 다녔다.



▲ 결혼 사진(1963년 5월)

대학생 시절, 나는 주일학교 선생과 성가대를 했으며, 농촌계몽운동과 선교사업에 열중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 또 취미로는 꽃꽂이에 흥미를 느껴서 임화공 선생님의 꽃꽂이 강의를 듣기도 했다. 나이들면서 나는 집 정원에서 꽃 가꾸고 야채를 기르는 것을 좋아한다. 남편은 골프를 잘 쳤다 (핸디캡 6).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 우리부부는 서로 다른 취미를 갖고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응원하고 도와주는 스타일 이다.

이대를 졸업한 후 나는 대한중석에 다니는 김부식 씨와 중매로 결혼을 했다. 선보는 날 나는 장안의 멋쟁이처럼 화려한 의상을 뽐내고 나갔다. 그런

데 나는 상대방을 만나자 ‘야코’가 죽었다. KS 마크 (경기고등학교에 서울 상대)는 제쳐두고 흰칠한 키에 잘 생긴 얼굴, 어찌나 멋이 있던지 나는 첫 눈에 반했다. 처음 느껴본 연애 감정에 가슴이 뛰었다. 거절을 당할까봐 마음이 조리기까지 했다. 62년 가을에 약혼하고 63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 초부터 64세에 원망 스럽게 내 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나를 ‘금이야 옥이야’ 하고 끔찍히 사랑해 주었다. 다시 태어나도 김부식은 나의 남편이다.

66년 초 남편은 영국 런던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나는 드레스 만드는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 때였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평소 “죽어도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우리는 2살된 아들과 3



▲영국에서 한국 돌아오는 김포비행장(1968년 7월)

개월 된 딸을 데리고 런던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그곳에서 외교관 처럼 화려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자 힘들게 애들 키우고 살림만 열심히 했다.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박태준 사장이 런던에 왔다. 나는 그 기회에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한국 귀국을 원한다고 사장님께 부탁했더니 선선히 응해 주었다. 그러나 귀국한지 10개월 만에 이번에는 일본 동경으로 발령이 났다. 일본은 한국과 가까워 종종 한국에도 나가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어, 런던 보다는 좀 여유있는 생활을 즐겼다. 동경 백화점 학교에서 스시 만드는 법도 정식으로 배우고, 꽃꽂이 국제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1972년 봄, 미국에 사는 오빠가 동경에 출장을 왔다. 오빠는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되어 형제 초청의 길이 열렸다고 미국에 와서 살자고 내게 권유 했다. 나는 외국생활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지쳐 있어서 미국행을 거절 했다. 그러나 남편은 평소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었던 차에, 처남의 제의를 적극 찬성했다. 72년 가을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 가족에게 3번 째 외국생활을 점지하셨다. 한국을 떠날 때 한 사람이 200달러씩 가지고 올 수 있던 시절, 외국 생활을 많이 한 우리 식구들은 대한중석 퇴직금을 비롯해 상당히 여유있는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온 돈은 별것 아니었다.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게 되어 있다. 남편은 밀바탕에서 다시 시작하는 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돈을 벌었다. 나는 애들을 잘 키웠다. 딸은 하버드대학을 졸업했고, 아들은 삼페인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나왔다. 나는 거의 반세기를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 시카고는 나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나는 1973년 11월에 시카고에 오자마자 나하고 사대부고 8회 동기생인 닥터 차웅만 씨 집에서 가진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후 오늘날까지 동창회 모임에 빠진 적이 없다. 그만큼 사대부고는 나의 분신이다. 나는 동창회의 '대모'이다. 나는 음악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하는 세계공통언어라고 생각

한다.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나간 후 나는 여성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1989년부터 창설된 여성회 합창단에서 단원, 부장, 고문으로 30여 년간 활동 했다. 2014년 시카고 문화회관에 혼성합창단을 창설한 일도 자랑스럽다. 올 4월 합창단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갖었다. 그밖의 활동으로는 여성회 회장, 복지회 이사, 북미주 이화대학교 총회장 등을 역임 했다. 현재는 이 지역사회의 단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문화회관 이사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는 삶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물심양면 으로 힘을 보탬뿐이다. 2009년 그동안의 나의 활동을 인정한 리처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으로부터 지역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평생 살고보니...

Life is beautiful! Enjoy today's gift of life
Appreciate every moment of life
And live life with Kindness 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친한 친구가 내 생일에 쓴 시를 소개하겠다.

“당신의 눈물은 큰 물가 옆의 냇강
아낙네의 빨래터
조무라기 놀이터
타악타악 맛고 땀물 뺏는 소리
시끌 법석 피래미 쫓는 소리
모두 안고서 같이 흐른다
당신의 미소는 우리 모두의 심터
실패자의 등판에 용기를 업혀주고
아픈가슴 기대는 어깨로
실컷 울게 내버려 두는 곳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하는 곳
모두 껴안고 잠재우는 편한 자리”
- 손숙자 -



▲권오화(2019년 3월)

Radiant Dream! Big Apple Club



미래의 패션잡지 에디터 안효진

먼저 저희를 말고 먼 뉴욕까지 초대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후배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따뜻한 선배님들의 마음이 제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뉴욕을 가기 전 우리나라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패션과 길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궁금해 그곳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모습으로 다니는지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뉴욕 5번가와 타임스퀘어를 걸어 다니다 보니 정말 특이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상상하지 못한 옷차림이었고 패션잡지 에디터를 꿈꾸는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하였을 때, 사실 우리나라 미술관을 떠올리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너무나 멋진 작품들에 신나고 흥분된 마음으로 감상했고 상상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소중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어 모두에게 만족스럽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한국에 있을 때는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할 일이 별로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르는 외국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는 등, 제 자신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보낸 시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들로 이 모든 것들은 선배님들이 아니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서울사대부고 후배라는 이유로 저희를 뉴욕까지 초대해 주시고 맞

있는 음식들과 함께 따뜻하게 반기고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은 글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사랑입니다. 각자 본인의 진로뿐만이 아니라 더 큰 미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선배님들을 기억하고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기자가 목표인 김성은

매번 진로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앞서 그 시간에 단어 한 자라도 외우라고 부모님께 타박을 듣던 저였습니다. 그렇지만 뉴욕에선 원 없이 진로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정말 적성에 맞는 일인지,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지요. 그럴 때마다 선배님들께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계속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간절히 원하던 게 무엇인지 찾기도 하였습니다. 어딜 가든 야구와 관련 된 곳이 있으면 눈을 돌리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맨해튼의 양키스 Store, Coney Island 의 야구장, Staten Island의 양키스 2군 야구장 등 야구와 관련된 자리에서 저는 항상 멈춰 습관처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사실 스포츠 기자를 꿈꾸기도 했었지만, 사회적 위상이 좀 더 높은 자리를 주변에서도 원해 억지로 외면해 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스포츠 부서에서 기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님들 말씀에 힘입어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욕심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여기에 적기까지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제 선

택이 영향력 있는 기사를 생각하셨던 선배님들께 아쉬움을 안겨드렸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다른 부서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를 거쳐보고 싶고 특히 다큐멘터리 부서와 해외 특파원도 꿈꾸고 있습니다. 뉴욕 특파원으로 선배님들을 뵙는 순간이 오길 꼭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지 뉴욕에서 제가 매우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만 끝나지 않고 꼭 행동으로 옮겨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배님들께서 모두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해주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 모두 새겨두고 저도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어 제 후배들에게도 꼭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마치 10일간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사랑하고 그립습니다!

건축가를 꿈꾸는 김재현

저는 건축가를 꿈꾸고 있어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하이라인 그리고 올해 새롭게 생긴 허드슨 아드의 Vessel처럼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양식이 담긴 건축물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김승호 선배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뉴욕 퀸즈에 위치한 LIC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아주 편리하고 시설과 조식, 서비스 모두 굉장히 좋았고 소음도 없는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워싱턴-나이아가라에 갔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9~10시 시작되는 일상이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특히 길을 걸으면 어는 것 하나 똑같은 건축물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일반 가정집마저도 제각각 다른 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새로운 건축물들이 눈에 들어왔고 제 휴대폰 카메라 셔터는 계속해서 번쩍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Vessel'이라는 건축물은 형태와 구조, 디자인과 색상까지 모든 면에서 시대를 앞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예술성을 보이면서도 건물의 안전성 또한 지킬 수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워싱턴으로 향하던 중 버스가 고장 나 경찰차를 타고 휴게소로 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신기한 경험이 저 평생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절제되고 정리된 느낌의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나이아가라





에서는 자연이 생성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창의적인 건축물의 예시가 될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열흘의 시간을 보내며 찍은 건축물 사진들을 방학동안 한권의 그림노트에 전부 그려보는 도전을 진행 중입니다. 팀원들과 인솔선생님, 선배님들과 함께한 추억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미국으로 저희를 초대해주시고 잠자리와 먹거리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리사를 꿈꾸는 이승현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전,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정말 힘들게 얻은 기회만큼 뉴욕에 갔다 온 경험뿐만 아니라 뉴욕에 가기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순간들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뉴욕 일정도 직접 짜보고 회화연습이나 자기소개 연습 등 미국에 가서 선배님들을 뵈 준비를 하며 설레고 긴장됐던 마음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먼저, 우리들을 친자식처럼 환히 반겨주신 동문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낯선 외국에 이제 막 도착한 우리를 위해 미국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덕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선배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리사를 꿈꾸고 있어 뉴욕이라는 도시 길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푸드 트럭들은 미국 사람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빠르고 맛있는 식사를 해결해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퓨전요리 음식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과 전반적으로 미국의 음식들이 짜다는 것 등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솔선생님, 친구들, 선배님들과 뉴욕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이런 추억을 만들어주신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뉴욕 일상에서 디자인을 경험한 정재현

이번 방문을 통해 얻고자 하던 '일상 속 녹아들은 디자인'의 경험은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로고가 가지는 상징성'에 있었습니다. 기념품 상점에 들어가게 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로고인 'I Love New York'을 보고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로고가 뉴욕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들어내고 있는 로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며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왜 'American'이 아닌 'New Yorker'라고 부르는지에 대해 궁금했는데 세계 최대의 도시인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자존심이고, 자랑거리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모아 함축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 'I Love New York'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비록 단순히 보이는 로고일지라도, 그 속에 로고가 만들어진 배경과 사람들의 인식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일상 속 녹아들은 디자인'이 단순히 거리의 풍경이나 제품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의 사상이 녹아들은 디자인 로고들 또한 일상 속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더불어 이번 여행에서 크게 느낀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배님들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저희가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선배님들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머나먼 땅인 뉴욕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 저희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시고, 조언 또한 해 주셨습니다. 단

지 같은 학교를 나온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이러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싶을 정도로 대접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배님들의 사랑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신 선배님들께 정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버킷리스트 미술관 관람 장유진

뉴욕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뉴욕 입국 심사장 위에는 예쁜 일러스트들도 가득했고 공항의 시계마저도 너무 예뻐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희를 마중 나온 오시국 선배님과 한윤미 선배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귀여운 뉴요커 원숭이 인형도 하나씩 목에 걸어주시며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도 긴장을 풀고 선배님들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였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교과서에서 보던 그림들이 내 눈 앞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술작품을 볼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이 있는데 흑백 카메라를 이용해 명암을 구분해 관찰하는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중세, 르네상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이 한 층에 다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의 시대를 판별하기 힘들 때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흑백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은 명암이 뚜렷하기에 형태뿐만 아니라 빛의 방향, 그림자까지 뚜렷하게 관찰되고 중세 시대의 그림과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은 명암이 뚜렷하지 않아 형태와 색의 구별만 잘 될 뿐 빛과 그림자는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중세 시대는 종교에 관한 그림들이 대부분이므로 중세, 르네상스, 인상주의 그림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와 만찬을 제공해주신 김승호 선배님의 K-BBQ 가게와 맛있는 저녁을 대접해주신 이정우 선배님의 자택에서, 운전해주시는 차안에서까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빈손으로 미주에서 스스로 성공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는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유웅렬 선배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것을 보고 소중한 시간들을 내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래 눈물이 없는 편이라 안 울 줄 알았는데 공항에서 정말 펄펄 울었다. 10박 12일간 동문 선배님들과 우리 사이가 엄청 친밀해진 것이다. 동문 선배님들의 말씀처럼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앞으로도 선배님들과 즐거운 소통을 할 것이다. 동문 선배님들 정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뉴욕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후배들에 대한 사랑 넘치는 선배님들

뉴욕 여행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점이 제 큰 걱정이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십시일반 소중하게 모은 기금,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준 그 시간들이 아깝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방문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준비하고 또 다녀와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겠구나. 그래야 선배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 없이 부족한 아이들인데 과연 선배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배님들의 무한한 사랑 덕분일까요?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선배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에 마음 한편에 쌓여있던 근심이 내려갔습니다. 매일 밤 일정이 끝나고 가졌던 평가회에서도 아이들은 선배님들의 넘치는 사랑에 대한 애기를 빼놓지 않고 들려주었습니다. 도착하는 날 공항에 내린 순간의 환대에서부터 떠나는 날 공항 배웅까지 어느 순간하나 놓칠 것 없이 후배들에 대한 선배들의 애정을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마지막 헤어짐의 순간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릴 때는 저도 마음이 찡긋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고려한 맞춤 일정을 포함해 스스로 일정과 동선을 계획하고 움직여보는 등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들, 바로 따뜻한 인성과 배려, 책임감과 자신감 등을 볼 수 있었고 2주가 채 안 되는 일정 속에서 마치 몇 년 동안 성장한 것 같은 모습에 무엇보다 뿌듯한 마음입니다. 선배님들이 말했던 와서 보고 들으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란 것이 이렇게 불현 듯 찾아온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과 사람사이의 만남에 대한 소중함, 선배들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아이들이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단순히 공부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닌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이지요. 선배들이 주신 사랑을 추후에 훌륭히 성장해서 후배들에게 그대로 베풀겠다고 만찬자리에서 말할 때는 마음이 몽클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후배간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글을 쓰며 이번 여행을 준비해주신 선배님들과의 인연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해주신 선배님들과의 인연을 늘 기억하며 배려해주신 고마움 잊지 않고 후배들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지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글 | 김형국(인솔 교사)



I Dream, I Can!

글 | 박유진(인솔 교사)

사대부고 5명의 학생과 인솔교사 1명은 지난 8월 13일(화)~8월 24일(토), 10박 12일간 남가주 선농장학재단의 초청으로 'I Dream, I Can!'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LA 및 미서부일대를 방문했습니다. 안방자 고문님, 최영일 이사장님, 박부강 선배님, 부명자 선배님, 김승모 선배님, 박영훈 선배님, 여섯 분 준비위원님들의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배려를 통해 알차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돌

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가주 선농장학재단 준비위원님들의 여러 번의 논의와 고심 후 탄생한 체계적인 일정을 통해, 대한민국민회 기념관,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 US Bank Tower, 유니버설 스튜디오, 게티 박물관, 그리피스 천문대, 할리우드, 그랜드캐년, 라스베이거스 등의 LA 및 서부 지역의 명소를 빼놓지 않고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명소 탐방보다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사대부고의 선배님들께서 초청된 5명 학생들 개개인의 장래 희망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일정을 계획하여 진행해주셨다는 점입니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을 위하여 헌팅턴 라이브러리, 항공기 조종사가 꿈인 학생을 위하여 JPL- NASA를, 공연 기획자가 꿈인 학생을 위하여 Hollywood Bowl, 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의 공연 관람의 일정을 후배들에 대한 애정으로 세심하게 계획하여 일정에 넣어서 진행해주셨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학생 개인이 '관광' 차원에서 여행을 왔거나,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장소들을 섭외했다면 모두 담을 수 없었을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었던 점은 미국대학 입시 박람회 참가하여 미국대학 입시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UCLA, USC, LATTC, LACC 등의 다양한 위상과 전문성을 지닌 여러 대학 캠퍼스 투어를 하며 학생들이 미국 대학 입학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없앨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행 출발 전에는 전혀 미국 대학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자신감도 부재했던 학생들이, I Dream, I Can! 프로그램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자신도 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미국 문화와 영어에 대한 약간의 공포심을 극복하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나갈 수 있었던 10일간의 경험이 가치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I Dream, I Can! 프로그램의 마지막 평가회 때, 모든 학생들은 정말 꿈과도 같았던 시간이라고 입을 모아 소감을 밝혔습니다. 후배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남가주 선농장학재단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솔했던 교사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을 만들어주신 남가주 선농장학재단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보내며 이 글을 마칩니다.



이해 안 되던 아이

이젠 풀어 놓아도 이해 받을 수 있겠다. 동급생끼리라면 이해 해 주길 바라지도 않았던 사건이다. 60년 전, 부중 2학년에 진급해서 김행목 선생님이 담임이신 5반이다. 우리 동기에 친 동생을 두신 오빠 같은 총각 담임선생님이다.

새 학년, 새 학급, 새 친구들과 섞여 이루어진 첫 시간이라 기억된다. 1학년에 입학했을 첫 시간엔 반장을 뽑지 않았다. 입학성적으로 반장, 부반장이 임명되었고 2학기에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치렀다.

초등학교 때도 반장 선거는 반드시 무기명으로, 쪽지에 내 손으로 반장 시키고픈 아이의 이름을 써서 제출하는 투표 방식이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발표력이 왕성하지 못한 것은 확연한 상황이다. 내가 누구를 반장 감으로 생각하는지 확신도 없다. 감히 손들고 아무개요 라고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아이는 극소수다.

동의한다는 의견조차 발표 하지 못하던 수줍은 아이들 앞에서 파격적인 방법을 제안하신 담임선생님의 속내를 난 단박에 알아챘다. 순간, 아차 잘못 생각하셨다는 판단이 섰지만 감히 반대할 엄두를 못 냈다. 담임선생님의 체면을 생각했던 때문이다. 내가 읽은 선생님의 마음은 입학성적이 일등으로 1학년 4반 반장했던 아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이가 반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신 거다.

여학생 반, 4, 5, 6 세 반에서 33%씩 섞여 새로운 세 반으로 구성되었으니 겨우 자기하고 같은 반 했던 애들 외에는 친분이 없다. 그중 용감한 아이가 있으면 추천과 거수로 투표하는 방식이 먹혀들겠지만, 내 판단엔 무리수가 높은 결정이다.

“누구 반장할 사람을 추천하세요.” 정적이 흐른다. 다시 선생님의 음성이 들린다. 또 조용하다. 나처럼 발표력이 강한 아이가 나서 주어야 한다. 답답할 만큼 시간이 흐른다. 드디어 누가 일어나서 박숙자요. 추천한 아이는 박을우다. 그것으로 끝이다.

어느 누구도 선 듯 일어나 다른 아이를 추천하지 않는다. 단독후보로 만장일치다. 그렇게 해서 2학년 1학기 반장은 결정이 됐다. 석연치 않은 결과에 반박을 했던 아이가 있었으니 바로 좋은 입학성적으로 1학년 4반 반장을 일 년 했던 아이였다. 내가 반장이 못 되어 이견을 제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 또래 아이들이야 생각이 부족해서 자기가 반장이 못 돼서 불평이라 말한다. 그들에게 반박하지 않는다. 어린애들의 지능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걸 나는 이해한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선생님의 부족한 판단력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그로 인해 교사 초년병이던 김행목 선생님은 편치 못한 고역을 치루셨으리라 짐작했다. 그것으로 조용하게 1학기가 흘렀다. 반장된 아이는 어느 촌에서 반장으로 경험이 풍부한 수재였으니 잘 이끌어갔다. 더구나 한 학년 위 선배가 동향인이라 지난 시험문제 프린트물이며 각종 혜택을 다 받아서 성적도 일등을 놓치지 않았다. 부러웠다.

성적이나 반장됨을 부러워했으면 나도 공부 좀 했을텐데 고향에서 함께 했던 선배가 곁에 있어 온갖 도움을 준다는 사실만이 나를 허하게 만들었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자주 우리 반으로 반장아이를 찾아오는 선배가 반갑지 않은 존재로 각인되고 있었다.

동갑내기 반 아이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감정이 없다. 팬스레 모두들 어려 보여서 나와는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돕는다. 그 애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친구할 수 있는 또래가 아니다.

2학기가 되었다. 혼이 난 경험이 있던 담임선생님은 빈 종이를 돌리고 무기명 투표로 반장을 뽑았다. 아직까지 김행목 선생님께 해명을 하지 못했는데 찾아뵈어야 할 것 같다. 14살 계집애의 어른 뻘치던 이론을 지금인들 믿으실까 모르겠다.

믿거나 말거나, 예나 지금이나 장 자리에 관심없이 편하게 살고 있다 나는.



참음의 끝

22회 동기 25명과 그들의 동반자 5명 등 합 30명이 참가하였던 이번 뉴욕 크루즈는 2018년 12월 18일, 그 구체적인 일정을 우리 22회 사이트에 알리며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실제 출발하는 10월 25일까지는 11개월이 남아 있었지요. 그 기간은 길었고, 우리는 오랫동안 참아야 했습니다. 나는 그 참고 준비하는 기간이 참 좋았습니다. 드디어 10월 25일, 우리들의 참음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여러분, 뉴욕 John F Kennedy 공항이 49년만의 상봉으로 얼마나 떠들석 하였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When times are tough,
You are always there.
It has brightened my world
Just knowing you care.

*그곳에서 낯익은 친구의 미소 (old familiar smile)를 다시 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던 이야기들(deep inside we've locked away) 여태 표현하지 않았던 감정들(emo-tions yet untold)이 설새없이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들의 결속 (Bonds)은 더 단단하여 져고 묻혔던 이야기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all unfold)... 친구들의 입은 속에 있는 생각들을 미처 다 빨리 말을 못한



나머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태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인내심이었지요? 친구들의 귀는 들리는 소리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작았고, 친구들의 변한 모습을 분주히 살피는 눈은 그 달라진 모습들을 전부 받아들이기에는 훨씬 더 커져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49년만에 처음 만나서 서로 포옹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처럼 누구를 49년만에 만나는 순간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참고 있었던 그 긴 시간의 끝에 드디어 도달한 것이지요. 감격이었습니다.

10/24 저녁, Oregon의 Portland 공항에서 New York 행 비행기를 탑승구 앞에서 기다리면서, PCru-22 단독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시대에 체험하는
가장 낭만적인 시간
속깊은 이야기를 주고 받을 옛친구
잘 익은 포도주 한잔,
무엇이 더 필요한가?

- Craig Buckholder 시 일부인용



연합회 후원 명단

기수	이름	회비	연회비	기타
8	권오화	\$1,000		
8	장효열/이종삼(6회)	\$500		
10	변인재	\$200	\$30	
10	안종희	\$300		
10	서정학	\$70	\$30	
11	오세방/오숙자	\$500		
11	김혜자	\$30	\$30	
11	김영교	\$70	\$30	
11	선우정수	\$50		
11	김청자	\$200		
11	홍효화	\$100	\$30	
11	신해순	\$200		
13	김경자			약정 \$300
14	노홍식	\$200		
14	방정자	\$70	\$30	
14	정조숙	\$500	\$30	
16	이종근	\$70	\$30	
16	한영한			약정 \$300
18	이경숙		\$30	
18	민홍승	\$70	\$30	
18	박소주	\$100	\$30	
18	김영용	\$500	\$30	
18	홍순희	\$500	\$30	
20	권일준	\$500		
21	김용환	\$250		
21	동기일동	\$1,130		
22	동기일동	\$1,000		
22	조병선/오경희	\$300		
23	남궁 인	\$30	\$30	
23	정금숙		\$30	
23	손명희	\$200		
23	채희금		\$30	
23	서울 동문 조희숙, 이현식, 박계용 문재숙, 정윤용, 이정우 이홍순, 신정희		\$240	
31	정경금	\$120	\$30	
47	구송영	\$300	\$30	

Total	\$9,960	\$780
Grand Total	\$9,840	

크루즈 여행 참가자

기수	이름
8	장효열 권오화
10	서행자 서정학 안종희 안가희 변인재 Robert Frank Gilbert
11	홍효화 박영은 오세방 김혜자 곽영화 김청자 김명렬 김영교 선우정수
13	김복자 김상환 김경자
14	방정자 오숙자 정조숙 김절자 노봉희 노홍식 고혜자 김건일
15	박찬명 조종만
16	이 현 이종근 한영한 그레이스한
17	임혜옥 백승덕 박기순 계인려
18	박소주 이경숙 신순홍 윤덕상 홍순희 김영용 박정일
20	김상현 김영옥 권일준 권 옥 황인규 양균석
21	김정문 김민주 임풍화 정수용 이훈표 한명숙 도보익 이동필 이공욱 이명식 강덕중 강금숙 김형곤 이경진 임재복 정환섭 송영옥 박찬규 김용환 고연숙 이명자 박순애 강태백 김형규 유정옥 유경옥 유병기 나상수
22	박흥주 심종택 주명숙 정옥경 강정숙 표정자 박남준 문 선 조병선 오경희 서정기 최완섭 오시국 박숙희 허남숙 이성득 윤소영 김선옥 신광용 황춘기 김만규 유원재 이민재 김성철 이을용 안영순 신인호 이양배 이원규 정용근
23	정금숙 손명희 Mike M. Rafatjah 이정우 채희금 김승호 김지화 조화숙 문재숙 신정희 이현식 정윤용 박계용 이홍순 남궁인 John O'Gorman
27	손병숙 조우식 김진혁 김영희
31	정경금
47	구송영 데이빗박 박하은/Rachel/Riley/Riane
N/A	김영숙 최경순 최경희 최경옥 김덕희 김문성 이천희 이명숙 이장복 이순희 김영한 김정원 정철우 장성자 심금순 심성구 김재광 김경숙 김호순 최영희 김덕수 정순선 전현숙 김선일 정용섭 이혜옥 박선영 Diane O. Lee David O. Choe

총 인원: 161명

2018

수입 내역

지출내역

지역	분담금	광고비			후원금					
L.A	\$2,000.00	김승호(23회)	NY	\$1,000.00	김옥경(25회)	Seattle	\$ 100.00	연합회 등록비	\$ 109.00	#001/002
S.F	\$ 200.00	채양식(22회)	Seattle	\$1,000.00	Hong Y Lee	Madison	\$ 100.00	회보 발간비	\$ 2,945.00	Ck#1001
Oregon	\$ 50.00	최영태(19회)	NY	\$ 250.00	이중희(2회)	LA	\$ 500.00	운송비	\$ 246.69	CK#1002
Seattle	\$ 400.00	최원섭(22회)	Oregon	\$ 250.00	오영균(2회)	LA	\$ 300.00	교장 방문겸비	\$ 4,830.00	CK# 1003
Chicago	\$ 500.00	안성주(16회)	LA	\$ 250.00	손명희(23회)	D.C	\$ 200.00	LETTER HEAD	\$ 70.00	CK# 1004
Michigan	\$ 50.00	20회 동문		\$ 500.00	이상강(21회)	O.K	\$ 200.00	은행 수수료	\$ 32.50	
Boston	\$ 50.00	25회 동문		\$ 500.00	기타	LA	\$ 100.01	시카고 방문 겸비	\$ 923.00	CK#1005
NY/NJ	\$1,000.00	김경숙(20회)	LA	\$ 500.00	Chicago	Chicago	\$ 700.00	UA 수화물 겸비	\$ 75.00	Card
Philadelphia	\$ 400.00	정동철(27회)	LA	\$ 250.00	권일준(20회)	NY	\$ 500.00	NY 시내 관광	\$ 183.00	Card
D.C	\$ 500.00	신용철(29회)	LA	\$ 250.00	김승호(23회)	NY	\$ 500.00	NJ PTA 면담	\$ 22.68	Card
Dallas	\$ 300.00	권오화 (8회)	Chicago	\$ 200.00				UA 수화물 겸비	\$ 75.00	Card
Toronto		김옥경외(25회)	한국	\$ 200.00				UA 수화물 겸비	\$ 25.00	Card
Atlanta	\$ 400.00	심효열(8회)	D.C	\$ 50.00				가담회 Banner	\$ 43.80	CK#1006
Oklahoma	\$ 50.00	21회 동문	LA	\$ 500.00				Park / Uber(Reim)	\$90.28	CK#1007
								한국회보 우송비	\$168.69	CK#1008
								연합회보	2400	CK#1009
Sub Total	\$5,900.00			\$5,700.00			\$3,200.01		\$12,239.64	
Grand Total							\$14,800.01		\$ 2,560.37	은행잔고

2019

수입 내역

지출 내역

지역	분담금	광고비				입금		우편료	\$163.75	C/C
이월금	\$ 2,560.37					3.13.19	\$3,600.00	크루즈 비용	\$3,284.00	CK 1012
LA	\$ 1,000.00	채양식(22)	WA	\$ 1,000.00	3.26.19	\$2,000.00		비품	\$64.64	C/C
ATLANTA	\$ 400.00	박기순(17)	LA	\$ 200.00	4.17.19	\$1,600.00		크루즈 비용	\$500.00	CK1013
SEATTLE	\$ 200.00	김영태(24)	LA	\$ 100.00	4.23.19	\$800.00		크루즈 비용	\$1,192.00	CK1014
PHILA	\$ 200.00	곽정현(24)	SF	\$ 200.00	5.22.19	\$4,158.00		크루즈 비용	\$712.00	CK1015
D.C.	\$ 250.00				5.29.19	\$2,016.00		크루즈 비용	\$571.00	CK1016
					06.04.19	\$3,554.55		크루즈 비용	\$1,060.00	CK1017
					06.07.19	\$2,634.33		크루즈 비용	\$490.00	CK1018
					06.10.19	\$4,742.61		크루즈 비용	\$3,363.55	CK1020
					06.12.19	\$7,668.21		KEVIN SHIN	\$191.00	CK1021
					06.19.19	\$2,382.22		크루즈 비용	\$1,727.11	CK1023
					06.25.19	\$8,534.10		크루즈 비용	\$2,426.22	CK1024
					06.26.19	\$252.00		크루즈 비용	\$5,417.36	CK1025
					06.28.19	\$2,195.11		크루즈 비용	\$5,796.00	CK1026
					07.08.19	\$2,850.00		OK H. LEE	\$777.11	CK1027
					07.18.19	\$3,294.44		HAZEL KIM	\$138.22	CK1028
					07.19.19	\$2,437.00		KYONG KIM	\$232.22	CK1030
					07.29.19	\$5,328.88		HELEN KIM	\$232.22	CK1031
					08.06.19	\$1,256.22		JUNGIL PARK	\$464.44	CK1032
					08.07.19	\$1,200.00		SOON SHIN	\$47.00	CK1034
					08.09.19	\$500.00		KYUNG LEE	\$47.00	CK1033
					08.12.19	\$271.78		크루즈 비용	\$4,313.44	CK1035
					08.15.19	\$300.00		크루즈 비용	\$6,879.66	CK1036
					08.27.19	\$697.11		크루즈 비용	\$7,408.44	CK1037
					08.27.19	\$200.00		크루즈 비용	\$966.00	CK1038
					09.09.19	\$1,000.00		크루즈 비용	\$4,921.22	CK1039
					09.13.19	\$200.00		크루즈 비용	\$6,738.99	CK1040
					10.23.19	\$1,000.00		CHONGHIAHN	\$258.75	CK1041
					11.06.19	\$315.00		CHONGHIAHN	\$255.39	CK1042
					11.06.19	\$5,020.00		KEUM CHUNG	\$69.11	CK1043
					11.08.19	\$2,290.00		47회 후원금	\$500.00	CK 1044
					11.12.19	\$530.00		RENT CAR	\$230.84	C/C
					11.12.19	\$3,192.32	Cruze Credit	크루즈 선물	\$1,865.69	CK 1045
					11.13.19	\$600.00		크루즈 선물	\$815.00	CK 1046
					11.18.19	\$4,498.54	Tour Credit	NY 운송 REIM	\$125.26	CK 1047
					11.18.19	\$191.00	Kevin Shin	BANNER	\$62.85	CK1048
						\$100.00	홍효화	KEVIN SHIN	\$191.00	CK 1049
					11.18.19	\$250.00	DC분담금	초청인REIM	\$1,680.00	CK1050
								크루즈 운송	\$105.00	CK 1051
								행사 경비	\$965.00	CK 1052
								행사비 보조1	\$500.00	CK 1053
								행사 비품	\$411.60	CK 1054
								행사비보조 2	\$750.00	CK 1055
								연합회보	\$2,750.00	CK 1056
Total	\$ 2,560.37					\$83,659.42			\$71,660.08	
							\$ 86,219.79		\$ 14,559.71	

As of 11/30/2019



LK & COMPANY

TAX CONSULTANTS



김영태(24회)

LYNN Y. KIM

Certified Public Accountant

Email: lynnkimcpa@gmail.com

Tel 213.739.1000 | Fax 213.739.1002

3600 Wilshire Blvd., #1510

Los Angeles, CA 90010



전하 서울사대부공고
연합 동창회 출범을 축하합니다



17회 박기순 (노기제)

Joy's Flowers



구송영(47회)

1704 McCallie Ave. Chattanooga, TN 37404

Tel: 423-698-8876

Toll Free: 800-989-1379

Email: joyflowers2@gmail.com

joyflowers2.com

chattanoogatnjoyflowers.com

뉴스타 "Jeny" 광정연 부동산

주택 / 콘도 / 아파트 / 상가건물 / 사업체 / E-2

www.norcalnewstarrealty.com



"Jeny" 광정연

CCIM Candidate

DRE#: 01383036

경력

(현) 뉴스타 샌프란시스코 부사장
상업투자 및 주택전문
38년간 베이직의 거주
산미타오 부동산협회 멤버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 멤버
마주 부동산협회 멤버

(전) Coldwell Banker
인터네셔널 트레이딩, 매니저

학력

EMBA Global 외국어대
이화여자대학교, 독문과
서울사대부고 (24회)

부동산투자 만큼은

완벽한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차원이 다른 Professional을 선택하십시오.



e-mail: jenykwak@gmail.com

www.norcalnewstarrealty.com/jenykwak

베이 전지역에 계신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 San Francisco, Santa Clara, Dublin, Millbrae 네곳에서
미리 전화 약속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Investment Property



Cell Phone
650-544-6099

▶ 745 Buchanan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
▶ 7033 Village Parkway, #210, Dublin, CA 94568
▶ Mailing Addr.: P.O. Box 997 Millbrae, CA 94030

www.4stour.com/info@4stour.com

여행을 계획 중이세요?

전세계 항공권과 전세계 투어 전문

춘추여행사에서 특별한 가격과서비스로 여행을 도와드립니다.



전세계 항공권 특별 가격
고국관광/미국내 관광/일일관광
전세계 관광/크루즈/호텔예약

춘추와 여행하는 가장 큰 이유 세가지!

- ✓ **최상의 호텔!** 편안한 휴식으로 다음날 여행을 더 즐겁게!
- ✓ **출발 인원 30명으로 제한!** 매일 선착순 30명 제한으로 대형버스에서 이동할 편안하게!
- ✓ **출발부터 인솔자 동행!** 춘추는 공항에 손님들을 데려다주지 않습니다. 투어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인솔자가 함께해서 투어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찬란한 역사를 가슴에 담다
터키/그리스 12일
산토리니 포함

이베리아 반도에서 북아프리카까지 **12일**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2019년 여행업계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한 스페인 투어!

춘추가 매달 출발, 최고의 모객을 자랑하는 이유!

- 항공이동** 말라가에서 몬세라트까지 스페인에서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하면 어렵고 춘추는 항공으로 1시간 이내 도시를 더 보여드립니다.
- 세고비아 마하스 하인파울/피카소 생가**
- 바르셀로나 2박**
- 최상의 호텔!** 전 일정 4성급 호텔/모로코는 5성급 호텔
- 출발 인원 30명으로 제한!** 매일 선착순 30명 제한으로 대형버스에서 이동도 편안하게

마드리드-틀레도-콘수에그라-세고비아-파티마-까보다로카-리스본-세비아-룬다-랑헤르-페스-리바트-카사블랑카-랑헤르-그라나다-미하스-말라가 **항공이동 몬세라트-바르셀로나**
돈키호테에서 가우디까지 ~ 춘추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수채화 속에 주인공이 도다
북유럽, 러시아 13일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상테르부르크/모스크바

여행 일정: 헬싱키 - 게이랑에르 - 오슬로 - 스톡홀름 - 상테르부르크 - 모스크바

**** L.A. 출발부터 전 일정 인솔자가 동행합니다.**

**** 최상의 호텔/엄선된 식사 게이랑에르 한가운데 호텔에서 묵는 여행사는 춘추뿐입니다.**

두번의 항공 이동 호화유람선/고속기차로 이동을 편하게..

유럽의 대륙에 빠지다~
서유럽 7개국 13일
영국/벨기에/네덜란드/독일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양카문명으로의 사냥터
페루 6일
페루/마추픽추/나스카
2명부터 수시출발



크루즈 여행

특별함이 있는 곳, 럭셔리한 크루즈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서유럽/멕시코리베라 골프/동지중해/서지중해/정통 북유럽/알래스카/캐러비언-바하마/바하멕시코

Four Seasons Tour and Travel
춘추여행사
www.4stour.com | www.fly2korea.com

714-521-8989
본사 부에나파크 시온마켓 옆 오션플라자 내
5450 Beach Blvd, Suite 108, Buena Park, CA 90621



from Salmon *to* Fish Roe Products

Young Ocean has been striving to offer its clients many variety of high quality seafood from Alaska.

Please check out our full line of fresh products and make your order online at www.youngocean.com

20233 80th Ave. S, Kent, WA 98032

Tel. (253) 395-1900

info@youngocean.com



채자원(26회) · 채양식(22회)